

'단어와 문장, 책과 마음 나눔'

최명희문학관, 개관 16주년 · 세계 책의 날 맞아 23일 상담 · 체험 행사 개최

최명희문학관은 오는 23일 '단어와 문장, 책과 마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관 16주년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는 이 행사는 △ 소설 '혼불'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며 아름다운 우리말과 친해지는 '국어사전을 펼쳐라' △ 아동문학가들과의 일대일 상담으로 00한 우리 아이가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받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 △ '혼불'에 나오는 명문장을 멋진 손글씨 작품으로 담아 가는 '혼불문장나눔' △ 야외전시 '초등학생도 알면 좋을 '혼불' 속 우리말' 등이다. 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60명에게는 전주 문학인들이 기증한 신간 도서와 손때 묻은 헌책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날 상담과 체험 행사에 김근혜 · 정서연 · 하미경 작가가 함께한다.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근혜 작가는 최명희문학관 상주작가며, 최근 동화 '봉주르 요리 교실 실종 사건'을 냈다. 전북도민일보 신춘문



하미경(시인) 김근혜(동화작가) 정서연(공예가)

예와 '동시마중'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하미경 시인은 기린초등학교 등에서 독서토론논술 강사로 활동하며 얼마 전 동시집 '수선화 봉오리를 사했어'를 냈다. 토탈공예 공동체 순수작과 스토리텔링문화그룹 얘기보따리 단원인 정서연 작가는 도내 문화의집, 문화센터, 초·중등학교 등에서 공예와 캘리그래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마당에서 열리는 전시 '초등학생도 알면 좋을 '혼불' 속 우리

말'은 소설에서 뽑은 단어 스무 개를 소설 속 문장과 전라북도 시인 · 작가들이 쓴 문장으로 소개한다. 선정된 단어는 '감시르르 · 곰살갑다 · 끈지발 · 나홀나홀 · 다보록하다 · 몽글다 · 발싸심 · 사운거리다 · 소담하다 · 아리잡직 · 애오라지 · 오모가리 · 온달 · 음시레기 · 울랄울랄 · 이무렵다 · 조롭조롭 · 할랄이 · 포르릉 · 함초름하다'이며, 참여작가는 경종호 · 김도수 · 김정경 · 김정배 · 문신 · 신재순 · 오창열 · 장창영 · 조석구 · 진창윤 · 하미경 시인과 김근혜 · 김병용 · 김종필 · 박서진 · 송준호 · 윤일호 · 이경옥 · 이진숙 · 최기우 작가다. 한편 이 행사는 한국문화관광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명무 故조갑녀 전통춤 공개전수

남원 청소년 문화의집서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10회 진행

남원시가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온 명무 故조갑녀 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갑녀류 춤 공개전수는 18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집(관서당길 35(쌍교동))에서 총 10회 열리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조갑녀류 춤의 보존과 전승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유자와 일반인(신청자 20명)이 함께 소통하며 이해를 넓혀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수자 정명희 교수와 함께 조갑녀살풀이명무관 방문객을 위해 명무관 소개와 명무의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공개전수 신청은 18일까지며 궁금한 사항은 관공과(063-620-5657)로 하면 된다. '춤 향기는 '춘향제와 故조갑녀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별공연으로, 5월7일 오후 4시에 광한투원 내 완월정 특별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이번 특별공연은 제92회 춘향제와 1923년생인 명무 故조갑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자리이다. 한편 명무 故(조)갑녀는 1회 춘향제(1931년)에서 춘향사당에 헌화를 하고 제2~3회 춘향제에서는 검무와 화무를, 제4~5회 춘향제에는 단독 승무를 추는 등 춘향제 역사와 함께한 남원의 자랑이자 대표 명무로 남아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방곡곡 문화공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 선정

김제문화예술회관, 각각 선정돼 국비 1억2000만원 확보

김제문화예술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문연)가 주최 · 주관하는 2022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 공모 사업에 각각 선정돼 국비 1억 2천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한문연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프로그램인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 등 5개 공연을 유치하고, 클래식 · 뮤지컬 · 연극 · 발레 · 그림자극 등 자체 기획공연을 포함 연간 25회 정도의 공연 라인업을 확정 참신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대중가수 콘서트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과 청소년 등 세대별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문화예술인구로 유인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 전경.

컨셉으로 공연 · 예술교육 · 전시 3개 분야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초 · 중 · 고)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야! 너도 클래식 들을 수 있어'라는 테마로

매주 토요일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시대별 클래식을 악기연주, 예술감상, 생각나눔, 연주발표 수업으로 짜인새 있게 구성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과 감수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달 2022년 전시공간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전시실에서 진행되는 환경미술전에도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신청접수가 쇄도하는 등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올해 문화예술회관의 색다른 공연으로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하셨으면 한다.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고 위로 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일정 및 관람료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gim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시 · 군 여성회관장 협의회 개최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 · 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 신규 프로그램 안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난 15일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2022년 전라북도 시 · 군 여성회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시 · 군 여성회관장 협의회는 2015년 도내 여성회관의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우수사업 운영 사례 공유로 상호 플러스 성장을 위한 지역순회 회의로, 하반기는 타 시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도내 14개 시 · 군 여성회관 교육 담당 및 담당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사업 운영 체계 및 추진 현황과 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트랜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센터는 교육 수혜의 시각 지대 해소를 위해 시 · 군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을 밝혔다. 전정희 센터장은 "도내 시 · 군 여성회관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전북지역 여성 교육의 외연이 확장되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미래사회 여성 인재 육성과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해 시 · 군 여성회관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 형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업무회의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지난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주관처와 기초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2022 상반기 업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단 및 전라북도 14개 시 · 군 관계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도 · 농간의 문화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 장터 △문화누리 투어 서비스 △문화의 길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 참여한 사업 담당자들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객이 서비스 전반의 개선사항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의 지속 발굴과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재단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하반기 업무회의와 만족도 조사 등 실무진의 아이디어를 모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의 사용 여건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